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부 - 장려상 >

작품명	가람의 용사 수호
-----	-----------

안현경

주제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보호
기획의도	<p>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번지에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해양 생물과 육지 생물이 함께 그려진 점과 선사시대의 생활모습과 신앙을 보여주는 암각화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문화유산이 1년 중 8개월 동안 물에 잠겨 부식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준비기간에도 계속해서 문화재는 훼손되고 있습니다.</p> <p>2008년 2월 10일,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으로 국보 1호 송례문을 잃었던 우리는 반복되는 무관심으로 인해 또 다른 국보를 잃어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살리고 나라의 보물로 보존하기 위하여 국보에 대해 널리 알리고 우리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창작을 위한 스토리텔링 창작물을 기획하였습니다.</p>

등장인물

등장인물명 1	수호
역사와 문화재에는 관심이 없는 소년. 말쑥을 피운 별로 할아버지 댁에 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와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에 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이끌려 물에 빠진다. 물에 빠져 선사시대로 차원이동을 하게 된 수호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 달래와 친구들과 함께 가람을 찾으러 모험을 떠난다.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며 친구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가람의 수호자로 거듭난다. 가람의 힘으로 현실세계에 돌아온 수호는 반구대 암각화와 선사시대 문화재들과 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등장인물명 2	달래
강의 신의 목걸이 '가람'을 지키는 부족의 소녀. '가람의 수호자'를 애타게 기다린다. 마을사람들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용기 있는 소녀이다. 수호와 동물친구들과 함께 가람을 되찾고 마을사람들을 구해 돌아온다. 현실세계로 돌아가는 수호에게 자신들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해 달라고 말한다.	
등장인물명 3	하타
사악한 주술사. 달래의 부족에게서 가람을 빼앗은 뒤 가람의 힘을 이용하여 부족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사악함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사람들과 동물들을 잡아가 죽이거나 주술을 걸고, 수호와 친구들을 죽이려 하지만 결국 가람의 힘에 의해 죽게 된다.	
등장인물명 4	몽이
달래와 함께 다니는 귀여운 강아지. 덩치는 작지만 용감하다. 수호를 가람의 수호자로 생각한다. 수호와 함께 친구들과 마을사람들을 구하고 함께 싸운다.	
등장인물명 5	감이
호랑이, 생김새와는 다르게 겁이 매우 많음. 하타에게 친구들이 잡혀감. 수호를 구하기 위해 하타에게 잡혀가고 그 때를 계기로 겁쟁이 호랑이에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줌.	
등장인물명 6	격지
멋진 송곳니를 가진 멧돼지. 자신의 송곳니를 자랑스러워 한다. 힘이 세고 용감하다. 무슨 일이든지 돌진하고 나아간다. 마지막 전투에서 송곳니를 가지고 열심히 싸운다.	

등장인물명 7 | 마루

멋진 뿔을 가진 마음씨 착한 숫사슴. 투덜거리는 수호를 챙기고 가장 먼저 수호에게 마음을 연다.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해주려고 하는 착한 마음씨를 지녔다.

줄거리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하는 것만 좋아하는 수호는 학교에서 말썽을 부린 별로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된다. 할아버지는 친구도 없고 놀 것도 없어서 따분해하던 수호를 데리고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을 가지만, 역사에 관심이 없는 수호는 전혀 흥미가 없다.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박물관을 빠져나온 수호는 누군가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가게 된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 물가에 이른 수호는 무언가에 이끌려 물에 빠지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는 것을 느끼고 정신을 잃는다.

수호가 간 곳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던 선사시대의 부족마을. '가람'이라고 불리는 강의 신의 목걸이를 지키는 부족으로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마을에 사악한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주술사 하타가 나타난다. '가람'을 빼앗아간 하타는 가람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사람들과 동물들을 잡아가고 모든 부족들을 사악한 힘으로 지배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하던 삶을 살던 부족 사람들은 점차 힘들고 슬픈 삶을 살게 된다. 사악한 힘은 점점 강해져 가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잡혀가면서 사람들과 동물들은 겁에 질린다.

땅과, 하늘과, 바람, 강물,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생명들이 슬퍼하는 시절이 오면 '가람'에게 선택받은 한 사람이 부족을 구한다는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오는 부족의 전설을 믿고 있는 달래와 부족사람들은 '가람의 수호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제사를 지낸다.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가람의 수호자'를 기다리던 달래는 강가에 쓰러져 있는 수호를 보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마을로 데려간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수호는 눈앞에 보이는 동물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다. 부족사람들과 동물들을 본 수호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빨리 깨어나고 싶어한다. 수호가 '가람의 수호자'라고 생각한 마을사람들은 수호에게 사악한 주술사 하타를 물리쳐 달라고 애원하지만, 겁에 질린 수호는 마을을 뛰쳐나와 도망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수호는 사악한 주술사 하타의 부하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수호를 따라온 달래와 동물들이 수호를 구해주고 마을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수호는 달래와 동물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집에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수호가 '가람의 수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망한 달래는 친구들과 마을로 돌아온다. 달래와 친구들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에는 '가람의 수호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악한 주술사 하타가 마을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부족사람들과 동물친구들을 잡아간 후였다. 더 이상 '가람의 수호자'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달래는 하타에게 잡혀간 친구들과 마을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떠난다. 수호는 마을의 주술사에게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하타가 가진 강의 신의 목걸이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타에게 집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달래를 따라 나선다.

모험의 시작

달래는 투덜거리고 불평이 많은 수호와 함께 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수호에게 화를 내고 먼저 가버린다. 마음착한 사슴 마루만이 뒤에 남아 투덜거리는 수호와 함께 가던 중 밧에 걸린 거북이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는다. 거북이를 구하기 위해 다가간 마루도 밧에 걸리고 수호는 혼자서 마루를 구하려 한다. 수호가 마루를 밧에서 빼내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달래와 동물들이 달려온다. 수호와 달래와 동물들은 힘을 합쳐 마루를 구해내고 거북이도 함께 구해낸다. 함께 힘을 합쳐 마루를 구한 후 동물들과 수호는 서로 마음을 열게 된다.

숲속에서 혼자 떨어져 길을 잃은 수호는 하타를 만나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지만, 하타에게 잡혀갈 위기에 처한다. 달래와 동물들이 수호를 구하던 중 달래와 겁쟁이 감이가 하타에게 잡혀간다. 자신 때문에 잡혀간 것이 미안한 수호는 달래와 감이를 구하기 위해 하타가 사는 곳으로 떠난다.

하타가 사는 곳이 가까워지면서 길은 점점 절벽으로 이어진다. 위험한 길을 가던 수호는 절벽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진다. 바다에 빠진 수호를 고래아줌마가 구해 물으로 데려다 준다. 고래아줌마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하타가 사는 곳에 도착한다.

최후의 전투

배를 타고 하타가 사는 곳에 도착한 수호와 동물들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붙잡혀 있던 마을사람들과 동물들을 풀어주고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싸웠지만,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공격하는 하타의 부하들에게 점점 밀리며 위기를 맞는다. 그때 수호와 친구들을 돕기 위해 거북이과 고래들이 오고 바다 친구들의 등장으로 힘을 얻은 수호와 달래, 친구들은 하타의 부하들과 싸워 모두 물리친다. 부하들을 모두 잃은 하타는 가람의 힘을 사용하여 수호와 친구들을 죽이려고 한다. 주문을 외우자 하타의 목에 걸려 있던 가람이 빛나기 시작하고, 가람의 빛을 수호에게 던지지만 친구들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수호는 비키지 않는다. 커다란 가람의 빛이 수호를 덮지만 가람의 빛이 튕겨나가 하타의 가슴에 맞는다. 눈부신 빛에 싸인 하타는 재가 되어 사라지고 수호는 바닥에 떨어진 가람을 줍는다.

평화로워진 마을로 돌아온 수호는 달래와 동물들과 마을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축제를 벌인다. 전투에 참여한 용사들을 기리고 먼 훗날까지 위대한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부족 사람들은 전투장면과 전투에 참여한 용사들의 그림을 바위에 새기기로 한다. 즐거운 축제가 끝나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수호는 달래와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가람을 목에 건다. 주술사 할머니가 주문을 외우자 수호는 눈부신 빛에 휩싸인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눈을 뜬 수호는 수호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가운데서 희미하게 '자신들을 잊지 말라'는 달래의 목소리를 듣는다.

할아버지와 함께 반구대 암각화를 보러 간 수호는 할아버지가 반구대 암각화에 그림들에 관해 설명하는 동안 반구대 암각화를 바라본다.

암각화의 그림이 수호에게는 가람의 용사인 자신과 달래와 동물친구들의 전투장면으로 보인다. 암각화 속의 친구들은 수호에게 윙크를 하고 수호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웃는다.

작 품 본 문

1 소녀의 마을

강가에서 부족사람들과 동물들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낸다.

주술사할머니 '가람의 수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마을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보내주십시오'를 중얼거린다.
한 소녀가 간절하게 중얼거린다.

달래 (간절하게)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2 수호네 집

거실에서 통화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엄마 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화난 얼굴로 전화를 끊으며)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이번엔 정말 안 되겠어. 이 말썽쟁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3 할아버지 댁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소년. 창밖에는 눈과 발이 펼쳐지고 시무룩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다.
버스가 떠나고 시무룩한 표정의 수호 내리자 할아버지가 반가운 얼굴로 맞는다.

할아버지 (웃는 얼굴로)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으니까 이곳에서 푹 쉬다 가렴.

수호 심술 난 표정으로 대답도 하지 않는다.

4

할아버지는 수호에게 반구대 암각화를 보여주기 위해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에 데려간다. 수호는 계속해서 투덜거리며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억지로 끌려간다.

할아버지 저기가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이란다. 선사시대 그림 300여 점이 바위에 새겨져 있지. 반구대 암각화는 1995년에 우리나라의 국보 제 285호로 지정되었어. 지금은 1년 중 절반 가까이 물에 잠겨서 실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선사시대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사자료야.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하고 수호는 귀찮다는 듯이 이어폰을 낀다.

수호 (혼잣말로 투덜거린다) 아, 짜증나
 게임도 할 수 없고, 따분하기만 한 동네에.... 대체 이게 다 뭐야?
 새로 나온 게임도 아직 못해봤는데...

할아버지 수호야, 이리 와 보렴

수호 마지못해 끌려간다. 시큰둥하게 서있던 수호는 할아버지 몰래 박물관을 빠져나온다.

수호 지겨워 죽겠네. 도망쳐야겠다.

박물관을 나온 수호에게 '도와주세요'라는 작은 소리가 들린다.

수호 어? 뭐야? (소리에 이끌리듯이 걸어간다.)

5

물가에 다가간 수호에게 '도와주세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수호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 물가를 기웃거리다 무언가가에 끌려 물속에 끌려들어간다.

수호 (허우적거리며) 사..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수호는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는 것을 느끼고 정신을 잃는다.

6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호는 눈을 뜬다. 눈앞에 흐릿한 형체가 점점 뚜렷이 보이며 말 소리가 들린다.

몽이 참 이상하게도 생겼네... 분명 사람 같긴 한데..
(옷의 냄새를 맡으며).이건 뭘까? 털일까?

꼭지 (모자 챙을 가리키며)글쎄, 이건 어금니인것 같아.
내 어금니에 비하면 별로 좋진 않네. 하나밖에 없고 말이야.

꼭지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어금니를 보이고 마루가 다가와 수호를 바라본다.

마루 (모자를 보고) 아니야, 내 생각엔 뿔 같아

몽이 어? 눈을 떴다!!! ‘가람의 수호자’가 깨어났어요!!

동물들이 수호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수호 우와악!! 이게 뭐야!!

그때 한 여자아이와 할머니가 움집 안으로 들어온다.

할머니 ‘가람의 수호자’가 깨어났다고? 어디 보자....

달래 (수호를 이리저리 살피며) 할머니, 애가 진짜 ‘가람의 수호자’일까요?
너무 조그맣잖아요. 아직 어리고.....

수호 (겉에 질린 얼굴로 달래를 쳐다보다 자신의 얼굴을 세게 때리며)
아무래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빨리 깨야겠어!!

달래 (한심하다는 듯이)게다가...정신도 이상한 것 같네

동물들이 킁킁거리며 웃는다.

주술사 할머니 달래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순 없단다.

수호 (소리지르며) 여긴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연극인가? 아님 몰래카메라?

수호는 움막 밖으로 뛰쳐나간다. 움집에서 나온 수호를 보고 모여 있던 마을사람들이 수호에게 다가간다.

마을사람1 ‘가람의 수호자’시군요!!

마을사람2 (수호를 붙잡으며)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마을사람3 제 딸이 하타에게 잡혀갔어요! 제발 제 딸을 구해주세요!

수호 으...이거 봐요!! (마을사람을 뿌리친다)

마을사람1 제 동생도요! 도와주세요!!(수호에게 매달린다)

마을사람들 (수호에게 점점 다가가며) 저희를 구해주세요!
'가람의 수호자'여 도와주세요!

수호 (겁에 질려) 나...난 그런 사람 몰라요! 집에 갈래요!!
마을사람들을 밀치고 달려나간다.

7

마을에서 도망쳐 나온 수호는 숲속으로 들어간다. 초록빛으로 우거진 숲에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걷는다.

수호 (땀을 닦으며) 휴...진짜 무서웠네... 그건 그렇고 여긴 어디야?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계신거야?

수호의 뒤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고 동물들이 뛰쳐나온다.
살쾅이들이 뛰쳐나와 으르렁대며 수호를 공격하고 도망치던 수호는 넘어진다.

달래 조심해!!!

달래와 꺾지, 마루가 달려와 살쾅이들을 공격한다. 함께 온 감이는 나무 뒤에 숨어서 별별 떨고 있다. 살쾅이들이 도망가고 난 뒤 달래가 숨어있던 감이를 부른다.

달래 감이야, 이제 갔어. 괜찮으니까 나와

감이 (엉엉 울며)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 같았어

몽이 으이구, 덩치 값을 해야지!

꺾지 너도 어금니를 길러봐. 어금니를 기르면 용감해진다니까.
날 봐!! (감이에게 어금니를 자랑한다)

감이 (눈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무..무서우니까 그것 좀 저리 치워줄래?

넘어져 있던 수호에게 마루가 다가가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마루 '가람의 수호자', 괜찮아?

몽이 '가람의 수호자'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호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가람의 수호자'님, 괜찮으세요?

수호 어떻게 작동하는거지? 건전지가 들어간건가?? 몽이를 잡고 흔든다)
이거 게임이야? 대체 뭐야?

달래 여긴 위험해. 어서 마을로 돌아가야 해.
하타의 부하들이 곧 다시 나타날거야.

수호 하타? 그게 뭐야?

달래 사악한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쁜 주술사야.
우리 부족은 '가람'이라고 불리는 강의 신의 목걸이를 지키는 부족이야.
우리는 '가람' 지키며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타가 나타나서 가람을 빼앗아가고 가람
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 사람들과 동물들을 잡아가고 부족
들을 사악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지.

끼지 (화를 내며) 하타가 내 형제들을 잡아갔어!!

감이 (몸을 잔뜩 움츠리고 별별 떨며) 내...내 친구들도...
그...그런데...그...그 사람은... 주...주술을 건대

마루 옛날엔 자유롭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모두 무서워하고 슬퍼해.

몽이 그게 다 나쁜 하타 때문이야!

끼지 (화를 내며) 하타를 만나기만 하면 내 송곳니로 혼내줄거야!!

수호 그...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달래 우리 부족에게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어. 땅과, 하늘과, 바람, 강물.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생명들이 슬퍼하는 시절이 오면 '가람'에게 선택
받은 한 사람이 부족을 구한다는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이야.
우린 그 '가람의 수호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왔어.

몽이 맞아!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가람의 수호자'님!
우리가 강에서 당신을 구했어요.

마루 강에서 왔으니까 '가람의 수호자'가 확실해!

달래 하타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하타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기
전에 마을을 구해야해
(수호를 보며 간절하게) 네가 그 '가람의 수호자'라면 제발 우리를 도와줘

달래와 동물들은 수호에게 다가와 부탁한다.

수호 (당황하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난 '가람의 수호자'가 아니
야. 그런 사람은 몰라. 그..그리고 난 집에 돌아가야 해.

몽이 (수호에게 매달리며) '가람의 수호자'님, 도와주세요!

수호 (화를 내며) 난 '가람의 수호자'가 아니라니까!

꺼지 아니라고? 그럼 '가람의 수호자'는 어디 있는데?

달래 정말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니?

수호 하타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달래와 동물들은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달래 (혼잣말로) 아무래도... '가람의 수호자'가 아닌 것 같아. (동물들을 보며)
애들아, 마을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가람의 수호자를 기다리자.

달래와 동물들은 실망하여 마을로 돌아간다. 마을로 돌아가는 달래와 동물들을 보던 수호는
뒤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겁에 질린 채 달래와 동물들을 쫓아간다.

수호 어? 야! 너희 그냥가면 어떻게 해? 또 누가 날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란 말이야!!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8 달래의 마을

달래와 동물들이 마을 근처 언덕에 왔을 때 마을에서 연기가 난다.

꼭지 (쿵쿵거리며) 이게 무슨 냄새지? 오늘 마을에서 잔치하나?

감이 그런 애긴 못 들었는데... (입맛을 다시며) 맛있는 게 있을까?

마루 저것 좀 봐! 마을에서 연기가 나잖아

달래 빨리 가보자!!

연기가 나는 마을을 발견한 달래와 동물들은 마을로 달려간다. 몇몇 움집이 불타 연기가 나고 있다. 마을은 습격을 당한 듯 작살과 어망, 낚시 바늘, 깨진 토기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떨어져 있다. 마을을 살피고 다니던 달래와 동물들은 쓰러져 있던 주술사 할머니를 발견한다. 수호는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온다.

달래 할머니!!

주술사할머니 난 괜찮다. 하타가...

하타가 '가람의 수호자'가 나타났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더구나.

달래 마을사람들은요? 동물들은...?

주술사할머니 모두 하타에게 붙잡혀 갔단다.

마루 (슬프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꼭지 (화를 내며) 내가 있었으면 하타를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어금니로 찢어버렸을 거야!!

감이이는 두 눈을 가리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달래 (결심한 듯이) 할머니, 전 더 이상 '가람의 수호자'를 기다릴 수 없어요.

빨리 마을사람들과 친구들을 구하지 않으면 모두 죽거나 주술에 걸릴 거예요. 제가 마을사람들과 친구들을 구해오겠어요.

꼭지 (용감하게) 나도 함께 갈게, 달래야! 내 송곳니로 하타를 물리쳐 주겠어!

몽이 나도 함께 갈래. 난 이빨로 하타를 물어버릴거야.

마루 나도 같이 가

감이 (덜덜 떨며 작은 목소리로) 나..난...무서워...가...가고 싶지 않...

아무도 감이의 말을 듣지 않고 하타가 있는 곳으로 출발한다.

수호는 주술사 할머니가 누워있는 움집에 들어가 간절하게 부탁한다.

수호 할머니. 전 집에 가야해요. 집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술사 할머니 미안하지만 난 아무런 힘이 없구나.
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목걸이는 하타에게 있어.
'가람'을 되찾으면 너도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수호 목걸이요? 그걸 찾으면 집에 갈 수 있다가요?
그럼 하타에게 갈래요.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벌떡 일어난 수호. 재빨리 움막을 뛰쳐나온다.

9 모험의 시작

수호 아야, 이게 뭐야? 길이 대체 왜 이래?
다리아파 죽겠네... 여긴 자동차 같은 건 없어? 꼭 걸어가야 하는 거야?

못마땅하게 수호를 노려보며 가던 달래는 수호의 앞으로 다가와 화를 낸다.

달래 (화를 내며) 너 놀러가니? 우린 지금 친구들을 구하러 위험한 곳에 가고
있는 거라고! 너하고 함께 가자고 한 적도 없어!

달래는 화를 내며 먼저 가버린다. 눈치를 보던 동물들은 달래를 따라가고 마음착한 사슴 마루만 뒤에 남아 수호와 함께 간다. 투덜거리며 걸어가던 수호는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는다.

거북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마루 저기! 거북이가 뒷에 걸렸잖아! 가서 도와줘야겠다.

마루가 거북이에게 다가가지만, 마루 역시 뒷에 걸린다.

마루 도와줘!! 달래야! 수호야!

수호 (달래가 간 곳을 보며 망설인다) 아, 어떻게 하지?
(곧 결심한 듯) 할 수 없지. 내가 도와줄게

수호가 사슴을 뒷에서 빼내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달래와 동물들이 달려온다.

몽이 무슨 일이야?

감이 (겁에 질려) 어쩔 좋아! 뒷에 걸렸나봐

달래 애들아, 우리도 수호를 돕자!

수호와 달래와 동물들은 힘을 합쳐 마루을 구해내고 옆에 있던 거북이도 함께 구해낸다.

거북이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어디 가던 중인가요?

꼭지 우린 하타에게 붙잡혀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가는 중이야.

거북이 하타는 바다에 사는 우리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주술사예요. 제 친구들도 아주 많이 잡아갔어요! 하타에게 꼭 이겨서 친구들을 구하길 바라요!

달래 고마워

거북이 (수호를 바라보며)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호 (부끄러워하며) 뭘...나 혼자 한 일도 아닌데... 앞으로 몸 조심해

10

아라와 헤어져 길을 가던 수호와 달래, 동물들은 복잡한 숲속에 접어든다. 뒤쳐져 가던 수호는 달래와 동물들과 떨어지게 된다.

수호 다들 어디 간거야? 여기가 맞는 길인가?

하타 '가람의 수호자'라... 거창한 이름치곤 별 볼일 없는 꼬마군.

수호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누구세요?

하타 이 세계에서 날 모르는 사람은 없지. 너도 내 이름은 알고 있겠지?

수호 설마, 당신이 하타인가요?

하타 그렇다면?

수호 절 집으로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타 집으로 보내달라고? (비열하게 웃으며) 그럼 날 따라와라

수호는 하타를 따라간다.

몽이 '가람의 수호자'님~

마루 수호야!

꼭지 앓! 저기 봐! 하타가 수호를 데려가려고 해!

달래 안 돼! 하타와 함께 가면 안 돼!

수호 날 집에 돌려보내준댔어.

달래와 동물들은 수호를 데려가려는 하타를 막기 위해 달려간다.

하타·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진다)

감이 (뛰어들며) 아..안 돼!!

하타가 사라지며 수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던 달래와 감이도 함께 사라진다.

몽이 감이야!!

마루 달래야!!

달래와 호랑이가 사라지자 동물들은 침울해 진다.

몽이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감이는 분명히 무서워 하고 있을 거야.
이번에야 말로 진짜로 기절했을지도 몰라 (울먹인다)

수호 미안해...나 때문에...(시무룩해진다)

마루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린 달래와 감이를 구하러 가야해.

꼭지 맞아! 우리가 달래랑 감이를 구하러 가는 거야.
(홀쩍이는 몽이를 보며) 걱정마. 용감한 내가 있잖아!
난 가장 멋진 어금니도 가지고 있는 걸.

수호 (시무룩하게) 나도 함께 갈게. 나 때문에 잡혀 간 거니까..

마루 걱정마. 우린 분명히 달래와 감이를 구해낼 거야. 서두르자.

수호와 동물들은 달래와 감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난다.

11

절벽에 붙어있는 수호와 동물들

꼭지 (아래를 내려다 보며) 으아아;;; 눈이 핑핑 도네

마루 점점 길이 위험해 지고 있어

수호 아마 하타가 사는 곳에 가까진 것 같아. 조심해

그 순간 수호의 발 밑이 무너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몽이 (울먹거리며) 수호야~

바다에 빠져 보이지 않던 수호가 불쑥 수면위로 올라오고 수면에 물기둥이 생긴다. 수호를 등에 태운 고래가 아기고래와 함께 헤엄쳐 물으로 데려다 준다.

몽이 우와, 진짜 크다!

수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줌마. 덕분에 살았어요.

고래 아줌마 이곳은 위험한 곳이야. 어디에 가려고 하는 거니?

몽이 저희는 하타가 사는 곳에 가요. 거기서 친구들을 구할거예요.

아기고래 (흥분한 얼굴로) 진짜 멋지다! 나도 하타가 있는 곳에 가볼 수 있을까?

고래아줌마 하타가 사는 곳은 너무 위험하고 넌 아직 어려. (수호와 동물들을 보며)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하타에게 가는 거라고? 용감한 아이들이구나.

꼭지 에이, 뭘요~ 그 정도 쫘이야

고래아줌마 그래도 거기까지 절벽으로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해.
저쪽 해변에 있는 배를 타고 가도록 해라. 바다에서는 고래들이 너희를 도와 줄거야.

수호 정말 고맙습니다, 고래아줌마

아기고래 꼭 하타를 혼내주고 친구를 구해내!

고래들은 수호와 동물들과 헤어져 바다 속으로 잠수한다.

12 위대한 전투

배를 타고 하타가 사는 곳에 도착한 수호와 동물들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마루 여기가 하타가 있는 곳 인가봐

수호 어딘가에 달래와 감이가 갇혀 있을텐데...

몽이 내가 달래와 감이를 찾아볼게.

수호 응 부탁해.

몽이가 몰래 숨어들어가 달래와 호랑이 갇혀 있던 감옥의 문을 연다. 달래와 감이가 뛰쳐나오며 하타의 부하(살갱이)들과 싸운다

감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어흥~

꼭지 내 어금니 맛을 봐라! 에이!

몽이는 돌아다니며 마을사람들과 갇혀 있던 동물들을 풀어준다.

몽이 모두들 빨리 나가요!

풀려난 마을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다가간 수호

수호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하타와 싸워야 해요!

함성 소리와 함께 사람들, 동물들 함께 하타의 부하들과 싸운다. 호랑이들은 살갱이를 발톱으로 날리고, 사슴들은 뿔로 받는다. 멧돼지도 어금니로 하타의 부하들을 받고, 몽이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타의 부하들의 다리를 문다. 달래 역시 사람들과 함께 작살을 쥐고 싸운다. 모두 열심히 싸우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육지와 바다에서 공격하는 하타의 부하들에게 조금씩 밀린다.

달래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여기서 질 수 없어요

몽이 (바다쪽을 가리키며) 저기 좀 봐! 고래아줌마야!

고래아줌마 바다는 우리에게 맡기렴!

고래들이 큰 소리로 울자 하타의 부하들이 쓰러진다. 고래들이 다시 물을 뿜자 바다에 있던 하타의 부하들이 물기둥에 날아간다.

아기고래 야호! 너무 신나는 싸움이야!!

거북이 어이~ 우리도 도우러 왔어!

마루 (반가워하며) 거북이도 왔잖아!

거북이와 친구들은 단단한 등껍질을 사용하여 하타의 부하들을 기절시킨다. 바다 친구들의 등장엔 힘을 얻은 수호와 달래, 마을사람들과 동물들은 열심히 싸우고 결국 하타의 부하들이 모두 도망간다.

하타 (비열하게 웃으며) 이제 정말 끝을 내주마.

하타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하타의 목에 걸려있는 가람이 검게 빛나기 시작한다. 하타가 비열하게 웃으며 달래에게 가람에서 나온 검은 빛을 쏜다.

동물들 으악!

수호 안 돼!!

달래 수호야!!

수호가 달려들어 달래를 밀치고 검은 빛을 대신 맞는다. 가람의 빛이 수호를 덮고 수호가 괴로워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타의 목에 걸려있던 가람이 환하게 빛난다.

동시에 수호를 덮고 있던 검은 빛이 눈부신 환한 빛으로 바뀌어 수호의 주위에서 빛난다. 수호, 더 이상 괴로워 하지 않는다.

하타 이...이건 뭐야!!

수호를 둘러싸고 있던 가람의 빛이 튕겨나가 하타의 가슴에 맞는다.

하타 으음... 이...이럴수가...
 안 돼! 아아아악!!!

눈부신 빛에 싸인 하타는 재가 되어 사라지고 수호는 바닥에 떨어진 가람을 줍는다.

사람들 우리가 이겼다!!

동물들 야호! 우리가 이겼어!

사람들과 동물들은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한다.

13 축제와 이별

‘가람’을 돌려받고 다시 평화를 찾은 부족마을은 기뻐하며 커다란 축제를 벌인다.
몽이와 사슴은 즐겁게 뛰어다니고 초대받은 거북이와 동물들도 함께 기뻐한다.

감이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빠기며) 내가 얼마나 용감한 호랑이인줄 알아?
 난 용감하게 우리에서 탈출하고 하타의 부하들과 싸웠다구!!
 이제 날 겁쟁이라고 부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주술사 할머니 우리 모두 용감하게 싸운 용사들과 이 위대한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바위에 그림을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먼 훗날에도 이 그림을 보며
 영웅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꼭지 내 멋진 어금니는 크게 새겨줘야 해요!!

꼭지의 말에 모두 웃는다.

달래 역시 넌 ‘가람의 수호자’였어.

수호 (멋쩍어 하며)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

달래 우린 널 영원히 기억할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릴 기억해줘.

감이는 몽이를 끌어안고 훌쩍이며 운다. 수호는 동물들과 마을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나눈다.

수호 모두들 잘 있어요.

목걸이를 목에 걸고 주술사 할머니가 주문을 외우자 눈부신 빛이 수호를 감싸며 달래와 친구들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진다. 강렬하고 눈부신 빛에 수호는 눈을 감는다.

14

웅성거리는 소리에 수호가 눈을 뜬다.

걱정스런 표정의 할아버지와 사람들이 수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람1 앗! 깨어났어요!

할아버지 (걱정스런 표정으로) 수호야! 괜찮니?

수호 할아버지...나 돌아온거예요?

할아버지 이 녀석아. 큰일날 뻔 했어.

사람2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눈이 감기던 수호의 귀에 달래의 목소리가 들린다

달래 우릴 잊지마, 수호야.

15

수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에 들어간다. 예전과는 달리 밝은 표정으로 들어가는 수호를 보며 할아버지가 기뻐한다.

할아버지 (웃으며) 지난 번과는 표정이 아주 다르구나. 수호도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보구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

할아버지와 함께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에 들어간 수호는 여러 가지 유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박물관 안에 전시된 반구대 암각화를 바라보는 수호에게 할아버지가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할아버지 반구대 암각화는 1년 중 절반 가까이 물에 잠겨 있어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단다.

수호 (걱정스럽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물에 잠겨서 훼손된다구요?
그럼 중요한 문화유산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림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구요!

할아버지 그래서 얼마 전에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수문을 설치하기로 했단다. 수문이 완공되면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을 거야.

수호 (안심하며) 다행이네요. 꼭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이 사라지면 큰일이죠! 언젠가는 반구대 암각화를 직접 보러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그랬으면 좋겠구나. 수호야,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 뭐지 아니? 이걸 고래사냥하는 그림이고.....

할아버지가 반구대 암각화에 그림들에 관해 설명하는 동안 반구대 암각화 모형을 바라보던 수호는 암각화의 그림이 수호 자신과 달래와 동물친구들의 전투장면으로 보인다. 암각화 속의 친구들은 수호에게 윙크를 하고 수호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웃는다.

- 끝 -